

宋代 ‘田家詩’ 考*

禹 在 鎬**

<目 次>

- | | |
|---------------------|--------------|
| I. 서 론 | 2. 안분자족하는 농촌 |
| II. 연구 범주 | 3. 농촌 풍광과 경물 |
| III. 宋代 田家詩의 내용상 분류 | IV. 결 론 |
| 1. 고통과 간난의 농촌 | |

I. 서 론

중국은 역대로 以農立國한 농업 국가였고, 중국 고대사회는 대부분 농촌사회로 대변되는데, 이러한 점은 宋代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필자는 宋詩 중에서도 農村詩로 분류할 수 있는 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송대의 농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농촌의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인 ‘田家’를 소재로 한 시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착안해 송대 농촌시에 대한 일차적인 연구 작업으로, 우선 시제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들을 선별하여 ‘田家詩’라 칭하고, 본고에서는 이들 시를 우선 내용별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田家’라는 용어는 ‘農家’ 또는 ‘農夫[農父]’와 같은 말로도 쓰였으며,¹⁾ ‘田家詩’라는 용어는 다소 생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1)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田家’의 의미를 ‘農家’와 같은 뜻이라 풀이하였으나,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初版; 上海辭書出版社, 1986.11), 卷7 p.1277에서는 ‘農夫[農父]’라는 뜻으로도 풀이하였다.

소해 보이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나온 기존의 연구물에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²⁾ 본고에서는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미 唐代 ‘田家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³⁾ 본고는 상기 논문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시체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시들 중에도 송대 농촌사회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그려낸 시들이 적지 않을 것이지만, 편폭이 제한된 소논문에서 이들 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시체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田家詩’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⁴⁾

II. 연구 범주

혹자는 田家詩의 개념⁵⁾을 田園의 이상적 삶을 환상적이거나 낭만적인 분위기로 그리지 않고 전원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모습에 주목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원을 그리면서 전원엔 임하는 시로 정의하였다.⁶⁾ 다시 말해 田家詩는 농촌의 현실을 천착하여 농촌의 병폐를 지적

- 2) ‘田家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연구물로는 《古代田家詩·田園詩鑒賞》(侯健, 農村讀物出版社, 1986), <茶山の 田家詩 研究>(윤재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田家詩의 形象技法考-茶山の ‘夏日田園雜興’ 24首를 중심으로>(윤재환, 《연세어문학》 30·31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田家詩의 性格>(손찬식, 《웅진어문학》 제4호, 熊津語文學會, 1996) 등 다수가 보인다. 기존 연구물에서 사용한 田家詩의 함의와 본고에서 사용한 전가시의 함의는 다소 다른 경우도 있어 보이는데, 이는 연구 대상의 선별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 3) 禹在鎬·崔繼良, <唐代‘田家詩’考>(《中國學報》 제52집, 韓國中國學會, 2005. 12)
- 4) 시체에 비록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송대 농촌사회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그려낸 다른 시들은 별도로 다음 과제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5) 전가시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禹在鎬·崔繼良, 위의 논문,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별도의 장을 설정하여 언급하지 않고 간략히 서술하기로 한다.
- 6) 이러한 정의는 윤재환의 <茶山の 田家詩研究>(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1쪽에서 언급되었다. 윤재환은 田家詩가 비록 기본적으로는 田園

한다거나 농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 또는 田家嘆風의 시를 그 기본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 시는 田園詩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田家詩를 소재주의적 개념에 입각하여 農村과 田家를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한 시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농촌의 현실을 천착하여 농촌의 병폐를 지적한다거나 농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등의 농촌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시들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범주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으며, 관점에 따라서 중국시가에는 참다운 전가시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 또한 시의 내용과 소재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宋詩 중에는 농촌시 내지 전가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시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이들 시를 모두 추출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소재주의에 입각하여 詩題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를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⁸⁾

《全宋詩》⁹⁾에 수록된 송시 중에서 시제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는 모두 80 詩人の 120題 184首나 되어 많이 보이며,¹⁰⁾ 동의어라 할

詩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또한 田園詩와 일치하지 않는 개념적 범주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전가시를 전원시와 분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田家詩 풍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현실의 불만이나 괴로움을 피해서 전가에 관심을 갖는 陶淵明이나 王維 풍의 낭만적 경향이 한 가지이고, 전가의 삶속에 직접 뛰어들어가 그 속에서 포착할 수 있는 미세한 정서를 노래하며 전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읊는 田家嘆 풍이 다른 한 가지라고 하고 있다.

- 7) 이 시들은 社會詩의 범주에 넣어 다루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전가시'라는 범주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 8) 詩題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들은 田家를 주제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다.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9) 본고에서 인용한 시들은 모두 1998년 北京大學出版社에서 총 72권으로 출판한 《全宋詩》를 저본으로 하였으며, 본고에서 인용한 詩題 뒤 ()안에 부기한 숫자는 차례대로 《全宋詩》의 冊數, 卷數, 쪽수임을 밝혀 둔다. 시 원문에 나타나는 校勘 상의 문제 역시 《全宋詩》를 기본으로 하였다.
- 10) 宋詩 중에는 詩題에 '田家'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시 외에, 시 속에서 '田

수 있는 ‘農家’라는 용어를 시제에 사용하고 있는 시는 30수, 또 ‘田畝’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는 105수나 된다.¹¹⁾ 이외에도 田家나 農家와 유사한 용어를 詩題에 사용하고 있는 시로는 田居 12수, 村家 3수, 村畝 6수, 村居 2수, 農畝 5수, 農戶 1수, 農居 1수 등 30여수나 되어, 이들 시를 모두 합치면 총 349수나 된다. 짧은 한 편의 소논문에서 이 시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詩題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120題 184首로 연구범주를 한정하기로 한다.

Ⅲ. 송대 전가시의 내용상 분류

《全宋詩》에 수록된 시 중에서 詩題에 ‘田家’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시는 총 120題 184首이며, 이러한 유형의 ‘田家詩’를 한 수 이상 남기고 있는 시인은 모두 80명이다. 이중 ‘田家詩’를 가장 많이 남기고 있는 시인은

家’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였다. 당연히 시의 내용에 따라 전가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는 더욱 많을 것이지만, 전체 시를 하나하나 보면서 내용상으로 이들 시를 모두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은 편폭이 제한된 본고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 밖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田家를 소재로 한 시를 일차적인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그 연구 범주를 좁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선 詩題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한 184수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 11) 《全唐詩》에 수록된 2천3백여 시인의 4만8천9백여 수중에서 詩題에 ‘田家’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시는 31시인의 44題 59首였다. ‘農家’라는 용어를 시제에 사용하고 있는 시는 顧況의 <過山農家>(권267), 雍裕之의 <農家望晴>(권471), 崔道融의 <過農家>(권714), 顏仁郁의 <農家>(권763) 등 4수에 불과할 뿐이었고, ‘田畝’라는 용어를 시제에 사용한 시는 6수밖에 되지 않았다. 《全宋詩》에 수록된 시인의 수와 시수는 《全唐詩》에 수록된 시인의 수와 시수에 비해 대략 4배가 되는데, 《全宋詩》에 수록된 9천여 시인의 대략 20여만 수중에서 詩題에 ‘田家’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시는 80시인의 120題 184首였으므로, 田家詩의 수만을 단순 비교해보면 宋代가 唐代의 3배정도 되었다. 그러나 송시에서 시제에 田家 뿐만 아니라 農家 또는 田畝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시에 대한 田家詩의 비율은 당대보다 송대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唐詩의 詩題에 사용된 詩語의 빈도 분석에 대해서는 <唐代 農村詩 研究>(崔繼良,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12) 15~16쪽을 참고하라.

모두 6題 14首를 남기고 있는 趙蕃이며, 10수 이상을 남기고 있는 시인으로는 華岳(1題 10首)과 毛珣(1題 10首)와 方夔(3題 10首) 등 3명이 있으나 이들은 연작시로 10수와 8수를 지어 詩題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詩題의 수만을 보면 6題 9首를 남기고 있는 梅堯臣이 전가시를 많이 창작하였다. 이밖에 4수 이상을 남기고 있는 시인으로는 郭祥正(4수), 賀鑄(6수), 張耒(5수), 李綱(4수), 陳造(4수), 虞儔(4수), 張侃(4수), 趙希逢(8수) 등 8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3수 이하의 전가시를 남기고 있다.¹²⁾

본고에서는 우선 내용상에 주안점을 두어 이들 시를 분석하였다. 이들 시를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크게 힘들고 괴로운 농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田家嘆 내지 田家苦를 읊은 시, 안분자족하는 농촌 생활을 예찬하거나 풍년을 즐거워하는 田園詩風의 시 또는 田家樂을 읊고 있는 시, 시인의 눈에 보이는 농촌의 풍광과 경물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시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대체로 시인이 생존한 당시의 사회 환경과 개인적 취향 등에 따라 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한 시인이라 할지라도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상반된 시를 동시에 읊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먼저 힘들고 괴로운 농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田家嘆 내지 田家苦를 읊은 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통과 간난의 농촌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는 전체 120題 184首 중에서 54수 정도

12) 田家詩를 1수 이상 창작한 송대 시인으로는 歐陽脩(2), 韓維(2), 文同(2), 劉敞(2), 司馬光(2), 鄭獬, 劉放, 蘇轍, 華鎮(2), 陳師道, 吳可, 李新, 洪芻(2), 蘇過, 王庭珪, 呂本中(2), 郭印, 沈與求, 黃彥平(2), 劉子翬, 胡銓, 劉應時(2), 范成大(3), 楊萬里, 喻良能, 項安世, 許及之, 章甫, 王炎(3), 陳藻, 周南, 裘萬頃(2), 劉學箕(2), 釋居簡, 戴復古, 陳宓, 趙汝錕, 洪咨夔(2), 鄭清之, 葉紹翁(3), 陳元晉, 黃大受(3), 釋元肇, 嚴粲, 趙崇嶠(2), 方岳(2), 陳棨, 俞桂, 釋文珣(2), 利登, 潘璵, 劉黻, 舒岳祥(2), 馬廷鸞(2), 方回, 陳允平, 俞德鄰, 翁森(2), 趙文, 黃庚, 戴表元, 于石, 艾性夫, 黎廷瑞, 蔡士裕, 易士達, 羅南山 등 67명에 이른다. () 안의 숫자는 시수이며, 숫자가 없는 경우는 1수임.

이다. 이들 시는 농촌의 고통스런 삶을 읊고 있는 시가 대부분인데, 농촌 생활의 고통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홍수나 가뭄, 또는 蟲害 등의 자연재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해 흉년이 들면 농촌은 자연히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고통스런 공간이 되며, 송대 시인들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시를 통해 이러한 농촌의 고단한 현실을 노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재해가 없다 하더라도, 전쟁이나 내란 따위의 人災로 인해 賦役과 租稅를 부담해야 하는 농민은 고통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홍수로 인해 농가가 크게 손상된 모습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면서,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들을 애달파하고 있는 釋元肇(1189~?)의 <大水傷田家>(59책, 권3091, 36876쪽)를 먼저 한 수 보기로 한다.

| | |
|--------|------------------------|
| 沙頭秋日黃, | 모래사장 머리에 가을 해 누렇게 비치고, |
| 煙水白茫茫, | 물안개 자욱한 흰 물이 아득히 펼쳐졌네. |
| 無處分畦畛, | 논두렁 밭두렁도 분간할 수가 없는데, |
| 傷時貴糶糠, | 쭉정리와 거도 귀한 시절임을 아파하네. |
| 家鵝隨野鶩, | 집 거위는 들오리를 따라 헤엄치고, |
| 農父作漁郎, | 농부는 고기잡이 어부가 되었구나. |
| 禹力成千古, | 우임금의 공력은 옛 일이 되었으니, |
| 孤吟欲斷腸, | 홀로 읊조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하네. |

큰물이 농가를 해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 전편을 통해 큰물이 휩쓸고 있는 농촌의 수해 현장과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민의 참담함을 직설적으로 그려내었다. 그 옛날 治水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우임금을 떠올리며, 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통 받는 농촌의 현실을 목도한 시인은 슬픔과 동정에 애간장이 끊어지려 하는 것이다.

홍수로 고통 받는 농촌을 읊은 시로는 “보름동안 날이 맑더니 하룻밤 새 비가 내려, 어제의 보리밭은 모두 파란 못자리가 되었다. 개이고 비 오는 것 뜻대로 되기는 예부터 어려우니, 아내가 뒤따르고 남편이 앞장서서

노력해야만 하리(半月天晴一夜雨, 前日麥地皆青秧 陰晴隨意古難得, 婦後夫先各努力)”라고 농사짓기에 그렇게 좋았던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에 내린 많은 비로 농사를 망쳐버린 농가를 읊은 陳造(1133~1203)의 <田家謠>(45책, 권2429, 28066쪽), “산 앞의 빗줄기가 삼대 같이 굵게 내리니, 밭의 물마루는 지붕만큼이나 높네(山前雨脚如麻下, 田裏水頭猶屋高)”라고 한 虞儔(1160년 전후)의 <田家歎二首>(46책, 권2465, 28588쪽) 중 둘째 수, “가을비가 장마처럼 며칠간을 계속 내리니, 낫가에 빗소리 멈추는 것 듣지 못했네(秋雨霖淫數日間, 耳邊未聽雨聲間)”라고 한 張侃(1220년 전후)의 <秋後積雨起水會舜卿朱秀文有詩用韻作俳諧體田家苦三疊>(59책, 권3112, 37150쪽) 세 수 등을 들 수 있다.

홍수 이외에 가뭄이나 메뚜기떼 등도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천재지변이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천재지변이 한꺼번에 겹칠 때, 농가와 농민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趙蕃(1143~1229)은 <田家卽事>(49책, 권2623, 30511쪽)에서 “가련하구나, 변방 사람들은 오래도록 괴롭고 고달파, 가뭄과 물난리를 해마다 겪는구나. 가뭄과 물난리는 하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늘의 뜻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과 같다네(可憐番人長苦辛, 旱乾水溢年年事. 旱乾水溢天之爲, 天意如回一彈指)”라고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생기는 가뭄과 수해로 인해 오래도록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변방의 농민들을 가련해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고, 張耒(1054~1114)는 <田家二首>(20책, 권1172, 13238쪽) 중 첫째 수에서 “가뭄과 메뚜기떼 천 리를 뒤덮어 가을밭은 깨끗하고, 야생 차조 쓸쓸하니 팔월 하늘 깊어가네(旱蝗千里秋田淨, 野秫蕭蕭八月天)”라고 읊어 가뭄과 메뚜기떼로 인해 황량한 농촌의 가을을 읊기도 하였다.

홍수 가뭄 메뚜기떼 같은 자연재해가 가져다준 황폐한 농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시속에서 직설적으로 ‘꿈’나 ‘嘆[歎]’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陳師道(1053~1102)의 五言古詩 <田家>(19책, 권1114, 12641쪽)에서는 가을이 되어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관공서의 부역에 동원되어 정신이 없는 터에, 갑작스레 수해까지 덮쳐

더욱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을 읊고 있다.

| | |
|--------|-----------------------|
| 雞鳴人當行, | 닭이 울때 일하러 나가야 하고, |
| 犬鳴人當歸. | 개가 짖으면 일터에서 돌아와야 하지만. |
| 秋來公事急, | 가을이 되었는데도 부역 일이 급하여, |
| 出處不待時. | 나가고 들어옴이 시도 때도 없다네. |
| 昨夜三尺雨, | 어제 밤에 석 자나 비가 내려, |
| 竈下已生泥. | 부뚜막 아래는 이미 진흙이 가득하네. |
| 人言田家樂, | 사람들은 시골생활 즐겁다고 말하나, |
| 爾苦人得知. | 농민들의 고통을 저들이 어찌 알리. |

농촌에서의 농민의 생활이란 새벽닭이 울면 일하러 나가고 개 짖는 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릴 저녁 무렵에는 집에 돌아와 있어야 하지만, 시인은 첫째 연에서 닭이 울기도 전인 새벽에 이미 들판으로 일하러 나가고 개들이 문을 지키며 짖고 있는 어두운 밤에도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농부의 고달픔을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둘째 연에서는 앞에 ‘秋’자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음을 언급하면서도, 지나치게 부과되는 관공서의 부역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오히려 본업조차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농민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부뚜막 아래 이미 진흙이 가득하네”라고 읊은 다음 연에서는 농민들이 이미 잠잘 집도 먹을 밥도 여의치 않은 처참한 지경에 빠져, 살아가야 할 활로까지 끊어져버렸음을 토로함으로써, 농민들 생활의 비참함을 극단적으로 표출하였다. 마지막 구절에서 시골생활 즐겁다고 말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농민들의 고통을 어찌 알리?”라고 반문하여, 농촌 생활과 농민들의 삶이 고통과 난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켰다.¹³⁾

또한 章甫·張侃·方岳 같은 시인들은 詩題 자체를 아예 <田家苦>라

13) 繆鉞 等, 《名家鑑賞宋詩大觀》(上海辭書出版社, 1988.5), 653~654쪽 참고.

제목하기도 하였는데, 方岳(1199~1262)은 <田家苦>(61책, 권3221, 38458쪽)에서 “유월에 내리는 비로 논밭이 개울이 되더니, 칠월 가뭄으로 흙먼지가 연기처럼 날리네. 눈에 보이는 농사 일 수습한지 십 년이 되지 않는데, 밥을 찾아 배고파 우는 아이 생각할 겨를도 없네(六月之雨田成溪, 七月之旱煙塵飛. 眼中收拾不十年, 未議索飯兒啼饑)”라고 수해와 가뭄을 동시에 예시하며 먹는 것조차 힘겨운 농민들의 참담한 생활을 묘사하였다. 또한 虞儔(2수)·陳造(2수)·趙蕃·趙汝鑿와 같은 시인들은 시골 생활의 고통스러움을 직설적으로 언급하여 詩題 자체를 <田家嘆[歎]>이라고 제하기도 하였는데, 陳造(1133~1203)는 七言古詩 <田家嘆>(45책, 권2427, 28037쪽)에서 “이전에는 크게 이십 일을 비가 오지 않아, 못자리에는 이미 거북등처럼 균열이 생기더니. 근자에는 며칠 연속 비가 쏟아지듯 퍼부어, 보리 밭둑에 검은 구름 깔려 검붉게 썩고 있네(前之不雨甫再旬, 秧疇已復生龜紋. 近者連朝雨如注, 麥隴橫雲欲殷腐)”라고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지는 농촌을 묘사하며 농민들의 참담한 생활을 그리기도 하였다.

趙汝鑿(1172~1246)의 <田家嘆>(55책, 권2869, 34256쪽) 한 수를 더 보기로 하자.

| | |
|----------|---------------------------|
| 破屋三間結草扉, | 허물어진 초가삼간은 풀로 엮은 사립문인데, |
| 柴根煨火闔家圍. | 고목 뿌리로 불때고 거적으로 짐주위를 둘렀네. |
| 此生能得幾年活, | 이 한 목숨 몇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 |
| 薄命連遭兩歲饑. | 박복한 운명이라 두 해 연속 흉년을 맛았네. |
| 腸久鳴雷惟淡粥, | 배속에서 우레 소리 들리지만 뭍은 죽뿐이고, |
| 體雖起粟尙單衣. | 몸에는 비록 소름 돋으나 여전히 여름옷뿐이네. |
| 晚來稚子總歡喜, | 저녁 무렵 어린 자식이 갑자기 기뻐 좋아하며, |
| 報道小姑挑菜歸. | 작은 누이가 푸성귀 캐어 돌아온다고 알려주네. |

‘허물어진 집’이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조차 부족한 농촌의 참담한 실정을 그려내고 있다. 두 해 연이어 흉년이 들어 목숨조차 얼마나 더 부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표현을 통해서 생존 차체를

걱정해야 할 극단적인 상황임을 이야기하였다. 누이가 나물 캐어 오는 것에도 기뻐한다는 표현 속에는 농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가 담겨 있다.

자연재해 이상으로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농민을 더욱 살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부역이나 조세 같은 관에서의 혹독한 착취였다. 劉放(1022~1088)은 <江南田家>(11책, 권603, 7126쪽)에서 장마나 세금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江南의 田家를 읊었다.

| | |
|--------|--------------------------|
| 種田江南岸, | 강남 강언덕에서 농사를 짓는데, |
| 六月纔樹秧 | 유월에야 비로소 모를 심네. |
| 借問一何晏, | 왜 그리 늦은지 한번 물어보았더니, |
| 再爲霖雨傷. | 장마로 해를 입어 다시 심는다네. |
| 官家不愛農, | 관가는 농민을 아끼지 아니하고, |
| 農貧彌自忙 | 농민은 가난하여 갈수록 바빠 보내네. |
| 盡力泥水間, | 있는 힘을 다해 진흙물에서 일하여, |
| 膚甲皆疔瘡. | 피부가 온통 상처투성이라네. |
| 未知秋成期, | 알 수 없어라, 가을 풍년이 들더라도, |
| 尙足輸太倉. | 오히려 관가 창고에 바칠 게 충분할는지. |
| 不如逐商賈, | 차라리 상인을 쫓아다니며 장사나 하면서, |
| 游閒事車航 | 한가히 수레 끌고 배에서 일하는 게 낫겠네. |
| 朝廷雖多賢, | 조정에 비록 현인들이 많다지만, |
| 正許貲爲郎 | 재물 바쳐 낭관됨을 허락한다네. |

농부들은 장마로 수해를 입어 벌써 농사를 한번 망쳤으나, 마냥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에 온통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늦은 모를 다시 심고 있다. 가을이 되어 그나마 수확을 한다고 해도 조세로 관청에 내야할 세금이 부족하지 않을지를 걱정하고 있다.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지만, 농민들을 아낄 줄 모르고 부역과 세금을 부과하는 관청의 횡포는 농민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상인을 따라 다니며 장사나 하면서 수레나 끌고

배에서 일하며 물건을 나르는 것보다 못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농사짓는 농부들의 처참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시인은 이 시의 끝부분 두 구절에서 상인이 돈으로 관직을 산다고 하여, 상인들이 관료들과 교분을 맺어 염치도 없이 돈으로 관직을 사는 세태를 지적함으로써, 농사짓는 이들의 고통과 현실의 모순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시 외에도 과도한 세금과 착취로 핍박받는 농촌과 농민을 그린 시로는 “근력이 피폐해지도록 일해도 배조차 채우지 못하는데, 현의 관리에게 마칠 세금 충분한지는 생각도 못하겠네(筋疲力弊不入腹, 未議縣官租稅足)”라고 읊은 司馬光(1019~1086)의 <道傍田家>(9책, 권498, 6015쪽), “사시사철 고통스레 일해도 옷가지 하나 남은 게 없는데, 문 앞에는 고래고래 소리치는 관리가 세금 우려내네(四時作苦無袴襦, 門前叫嗔官索租)”라고 읊은 洪芻(1100년 전후)의 <田家謠>(22책, 권1282, 14501쪽)나 “아버지는 들관 위쪽의 밭을 갈고, 자식은 산 아래 황무지를 일구네. 유월에 이제 겨우 벼가 패었는데, 관가에서는 벌써 세금 거둘 창고 여네(父耕原上田, 子闢山下荒 六月一禾生, 官家一開倉)”라고 읊조린 같은 시인의 五言絕句 <田家謠>(22책, 권1282, 14504쪽),¹⁴⁾ “우리네 인생살이 이와 같은데, 관은 유독 누구를 위해 바쁘고(人生但如此, 官獨爲誰忙)”라고 한 黃彥平(?~1146)의 <田家春日二首>(30책, 권1705, 19196쪽)의 첫째 수, “관청의 일에 모두 다 공급해주고, 매조미쌀에 내 한 해 맡긴다네(供輸了官事, 粗糲任吾年)”라고 읊은 역시 같은 시인의 <田家春日二首>(30책, 권1705, 19196쪽) 중의 둘째 수, “벼와 비단 벌써 되었다고 마주보며 즐거워하지만 헛될지니, 관청에 바치고 나니 주인에게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구나(苗絹已成空對喜, 納官還主外無多)”라고 읊은 華岳(?~1221)의 <田家十絕>

14) 이 시는 唐詩 중에 “아버지는 언덕 위의 밭을 갈고, 아들은 산 아래 황무지를 뒤집네. 유월이라 벼이삭 아직 패이지 않았건만, 관가에서는 벌써 창고를 수리하네.(父耕原上田, 子闢山下荒 六月禾未秀, 官家已修倉)”라고 되어 있는 聶夷中的 <田家二首>(全唐詩 권636) 중 첫째 수와 글자 몇 자만 다르다. 이 두 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교 고찰이 필요한 듯하다.

(55책, 권2885, 34421쪽) 중 셋째 수, 수해와 세금으로 암울한 농가를 애달파하고 있는 易士達(?~?)의 <竹林傷田家>(72책, 권 3752, 45247쪽) 등 모두 20여수에 달하여, 그 예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 전편을 통해 일관되게 부역과 세금의 과중함이나 관리의 지나친 횡포와 착취를 묘사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시인들은 부역과 세금의 과중함 또는 관리의 지나친 횡포와 착취를 시속에서 직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내었다.

梅堯臣(1002~1060)은 <田家(四時)> 중 <冬>(5책, 권232, 2713쪽)에서 “나이 들어 장정이 된 그때부터, 오늘에 오기까지 고생뿐이니, 남은 세월 어찌 생각할 수 있으리, 누더기 옷 입으니 또 뚫어졌네(自從備丁壯, 及此常苦煎. 卒歲豈堪念, 鶉衣著更穿)”라고 읊어 부역으로 인해 야기된 농촌 생활의 고생스러움과 고달픔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다른 전가시 <田家語>(5책, 권241, 2791쪽)에서는 농촌의 고달픈 현실을 야기하는 많은 원인을 한꺼번에 모두 거론하며 시의 서두에서 “누가 농촌 생활을 즐겁다고 말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 | |
|--------|-----------------------|
| 誰道田家樂 | 누가 농촌 생활 즐겁다고 말하는가? |
| 春稅秋未足 | 봄 세금을 가을에도 다 못 내는데. |
| 里胥扣我門, | 마을 아전들이 우리 집 문 두드리며, |
| 日夕苦煎促 | 밤낮으로 괴롭게도 북아대고 재촉하네. |
| 盛夏流潦多, | 한여름에 홍수가 들어, |
| 白水高於屋 | 희뿌연 물이 지붕보다도 높았다네. |
| 水既害我菽 | 물이 우리 콩 농사를 망쳤는데, |
| 蝗又食我粟 | 메뚜기가 또 우리 곡식 먹어치우네. |
| 前月詔書來 | 지난달에 조서가 내려오더니, |
| 生齒復板錄 | 갓난아이까지 또 병적에 등록시키네. |
| 三丁籍一壯 | 장정 셋 중 한 명은 병적에 올려, |
| 惡使操弓韜 | 억지로 활과 전대를 들게 만드네. |
| 州符今又嚴 | 관청의 명령은 오늘 더욱 엄하여, |
| 老吏持鞭扑 | 노련한 관리 채찍과 몽둥이 들고 치고, |

| | |
|--------|-----------------------|
| 搜索稚與艾, | 어린이와 늙은이까지 모두 찾아내니, |
| 唯存跛無目. | 절름발이와 장님들만 남아 있네. |
| 田廬敢怨嗟, | 농사꾼 신세라 감히 원망하고 한탄하라! |
| 父子各悲哭. | 애비와 자식이 각기 슬피 울 뿐이네. |
| 南畝焉可事, | 남쪽 밭 어찌 돌볼 수 있으리오, |
| 買箭賣牛犢. | 활 사려고 송아지 팔아야 하는 터에. |
| 愁氣變久雨, | 수심이 변하여 장맛비 되고, |
| 鑿缶空無粥. | 가마솥은 텅 비어 죽도 없다네. |
| 盲跛不能耕, | 장님과 절름발이 밭을 갈 수 없으니, |
| 死亡在遲速. | 조만간에 죽음만이 남아 있구려. |
| 我聞誠所慙, | 내가 들은 일은 참으로 부끄러워, |
| 徒爾叨君祿. | 부질없이 봉록 축냄을 자책하게 되네, |
| 却詠歸去來, | 오히려 귀거래사나 읊조리며, |
| 刈薪向深谷. | 깊은 골에 들어가 나무꾼이나 되려네. |

梅堯臣은 군사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초를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시는 그 중 병역징집으로 인해 황폐해지는 농촌을 묘사한 것이다. 水害와 蟲害 같은 자연재해에다 租稅와 三丁籍一 같은 兵役까지 겹쳐 죽음만을 기다리는 불쌍한 농민들의 실상을 잘 기록하여 采詩官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서문을 부기함으로써,¹⁵⁾ 농촌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하여 下情上達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수심이 변하여

15)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달려 있다. “경신년 조서에, 백성들 세 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아, 교위와 오장을 세우고, 궁전수를 두라고 하였는데, 만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담당자가 임금님께 아부하려고, 군의 아전들을 독촉하고, 군의 아전들은 일을 처리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현령들에게 이 일을 위촉하였다. 서로 백성들만 못살게 하니, 어린이나 늙은이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위나 아래나 다 같이 수심에 잠긴 채 원망하였는데, 비까지 주룩주룩 멈추지 않으니, 어찌 임금님의 백성사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에 농부들의 말을 기록하고 차례를 잡아 글로 만들어, 시를 채집하는 이들을 기다린다.(庚辰詔書, 凡民三丁籍一, 立校與長, 號弓箭手, 用備不虞. 主司欲以多媚上, 急責郡吏, 郡吏畏不敢辦, 遂以屬縣令. 互搜民口, 雖老幼不得免, 上下愁怨, 天雨淫淫, 豈助聖上撫育之意邪! 因錄田家之言次爲文, 以俟採詩者云.)”

장맛비가 되었다함은 이른바 天人感應의 의미로, 농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분개를 표현한 것이다.¹⁶⁾ 이 시는 본 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전형적인 시로 들 수 있을 듯하다.

농촌 생활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읊은 田家苦 내지 田家歎風의 시를 송대 전가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겠지만, 전가시 중에는 이상의 시와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田家樂 내지 田園詩風의 시들도 상당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안분자족하는 농촌생활을 그리거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은 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안분자족하는 농촌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시들과는 반대로 田家詩에는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들도 많이 보인다. 농촌이란 평화롭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힘든 노동이 끝나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의 대가를 농민들에게 주는 넉넉한 장소이다. 가뭄 흉수 메뚜기떼 같은 자연재해가 없고 관청의 지나친 착취나 수탈이 없이, 자연적 조건이 맞아 풍년만 들어준다면 농촌이란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한가로움이 가득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로 전체시 184수 중 45수 정도를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에 넣을 수 있을 듯한데, 앞 절에서 분석하였던 시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과 풍격의 시들이다. 따라서 앞 절의 시와는 완전히 대비되거나 상반되어 서로 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병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속에서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田家詩는 “누가 말했든가, 시골 생활 괴롭다고, 시골 생활은 때때로 즐거움이 있는데(誰謂田家苦, 田家樂有時)”라고 읊은 歐陽修(1007~1072)의 <出郊見田家蠶麥已成慨然有感>(6책, 권290, 3666쪽), “누가 시골 생활의 즐거움을

16) 文明淑, <梅堯臣詩研究>(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6), 321~323쪽.

알리오, 옷을 떨치고 전원으로 돌아갈 흥취 길구나(誰識田家樂, 拂衣歸興長)”라고 한 李綱(1083~1140)의 <田家四首>(27책, 권1543, 17524쪽) 중의 셋째 수와 “누가 시골 생활 힘들다고 말했던가, 시골 생활 즐거움이 참으로 그러한데(誰謂田家苦, 田家樂甚眞)”라고 한 같은 시인의 같은 시 넷째 수, “시골 생활 고생스러워도 즐거움을 찾으면 슬프지 않고, 모판을 뽑아 논에 심으니 바야흐로 때가 되었도다(田家作苦樂不哀, 拔秧插田政時哉)”라고 한 趙蕃(1143~1229)의 <田家行二首>(49책, 권2623, 30514쪽) 중의 첫째 수, “마을마다 다들 즐거운 일을 하여, 곳곳마다 모두 편안히 살아가네(村村皆樂業, 處處盡安居)”라고 한 역시 趙蕃의 <田家即事八首>(49책, 권2633, 30760쪽) 중의 넷째 수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呂本中, 楊萬里, 方岳 같은 시인은 詩題 자체를 아예 <田家樂>이라 제목하기도 하였는데,¹⁷⁾ 여기서는 呂本中(1084~1145)의 <田家樂>(28책, 권1615, 18131쪽)을 한 수 보기로 하자.

東家西家蠶上簇 동쪽 서쪽 집집마다 누에는 섬에 오르고,

17) 方岳의 같은 시제 <田家樂>(61책, 권3221, 38458쪽)은 “앞마을 뒷마을 마을마다 논밭에는 곡식 풍성하고, 동쪽 서쪽 집집마다 벼를 찌는 소리 들려오네. 농신에게 제사지낸 후 음복하여 할아버지 취하였고, 남은 제사고기 담아가고 잔에는 국을 나누어 주네. 아녀자들 문에 서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부끄럽구나, 올해 나이 이미 들을 대로 들은 게. 소와 양들 내려오고 할아버지는 잠들었는데, 시절이 태평하여 밤에 세금 재촉하는 이 없구나(前村後村場圃登, 東家西家機杼鳴. 神林飲福阿翁醉, 包裹餘胙分杯羹. 婦子迎門笑相語, 慙愧今年好年歲. 牛羊下來翁且眠, 時平無人夜催稅)”라고 하여, 앞 두 구절은 마치 여본중의 시를 그대로 본받아 지은 듯하다. 마지막 구에서 “시절이 태평하여 밤에 세금 재촉하는 사람 없다네”라고 읊어 태평스런 세월 속에 여유롭고 흡족한 농촌 생활임을 노래하고 있다. 楊萬里(1127~1206)는 <田家樂>(42책, 권2300, 26421쪽)에서 “벼 이삭 타작장에 쌓아두니 수레에 곡식 가득하고, 집집마다 닭과 개 키우고 또 뽕과 마를 심어두었네. 집 주위에 무궁화 가득 심어 울타리로 만들었더니, 이미 시원한 그늘을 얻었는데 또 꽃까지 피었구나(稻穗堆場穀滿車, 家家雞犬更桑麻. 漫栽木槿成籬落, 已得清陰又得花)”라고 읊어 역시 풍성하고 여유로운 농촌을 묘사하였다.

| | |
|----------|----------------------------|
| 南村北村麥白熟, | 남쪽 북쪽 마을마다 보리가 하얗게 익었네. |
| 小兒腰鎌日早歸, | 작은 아이 낫을 차고 해지기 전 일찍 돌아오고, |
| 大兒去就田間宿, | 큰 아이는 밭에 있는 숙소로 나아가네. |
| 斗酒相邀不爲薄, | 말술로 서로 청하니 보잘것없다 마시고, |
| 鄰翁相對且斟酌, | 이웃 늙은이 상대하며 다시 술잔을 주고받네. |
| 聖主當陽億萬年, | 성스런 임금님 재위에 계신지 억만년이라, |
| 年年歲歲田家樂 | 해마다 해마다 시골 생활 즐겁다네. |

농사를 통해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거나,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연을 벗 삼아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하거나, 아무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탈하면서도 평화스런 감정을 펼쳐 내거나, 경제적 풍요 속에서 느끼는 풍성함과 만족감, 또는 전쟁 없는 태평성세에 명군의 치세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표현한 이런 부류의 전가시들은 낭만적인 전원시와 가장 유사한 시들이라 하겠다.

梅堯臣 역시 앞 절에 소개한 바 있는 <田家語>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과 풍격의 시를 창작하였는데, <田家(四時)> 중 <春>(5책, 권232, 2713쪽)에서는 비운 뒤의 안분자족하는 농민과 농가의 정경을 잔잔하게 묘사하였다.

| | |
|--------|-----------------------|
| 昨夜春雷作, | 어제 밤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왔으니, |
| 荷鋤理南陂, | 호미를 메고 가서 남쪽 기슭을 맨다네. |
| 杏花將及候, | 살구꽃이 필 때가 되었으니, |
| 農事不可遲, | 농사일을 늦출 수가 없다네. |
| 蠶女亦自念, | 뽕따는 아낙도 자기 일을 생각하고, |
| 牧童仍我隨, | 목동 또한 나를 따라 나서네. |
| 田中逢老父, | 밭에서 늙은 농부를 만나니, |
| 荷杖獨熙熙. | 지팡이를 짚고 홀로 즐거워하네. |

농가에서 가장 반가운 손님은 제때에 알맞게 내려주는 비일 것이다. 이 시에서는 바로 기다리던 반가운 봄비가 흡족히 내려 즐겁게 농사일을 시

작할 수 있는 농가의 기쁨을 서술하였는데, 첫 구절부터 여섯째 구까지는 비를 계기로 하여 바빠지는 농가 주변의 생기 넘치는 정경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시골 생활이지만, 제때 내려준 봄비 하나에도 마음 흡족하고 기분이 넉넉하여,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고 부러울 것 없는 안분자족한 생활임을 암시하였다.

이처럼 시기적절한 단비가 흡족히 내림을 즐거워하는 농민과 단비 내린 후의 정경을 읊은 시들은 자주 보인다. “밭마다 때맞춰 비가 흡족히 내리니, 소를 채찍질하며 힘써 밭을 깊이 가네(田田時雨足, 鞭牛務深耕)”라고 읊은 郭祥正(1035~1113)의 <田家四時>(13책, 권757, 8815쪽) 중 첫째 수, “지난 겨울 서설이 내려 보리 이삭 잘 자라고, 오늘 비가 개어 누에고치 처음 가리네(去冬雪好麥穗長, 今日雨晴初擇繭)”라고 읊은 張耒의 <田家三首>(20책, 권1163, 13124쪽) 중 첫째 수, “몇 밤을 연이어 비가 내려 풍년임을 알겠거니, 늙은 아내 배부르게 먹고 아이들은 기뻐하네(連宵作雨知豐年, 老妻飽飯兒童喜)”라고 읊은 王庭珪(1080~1172)의 <和周秀實田家行>(25책, 권1456, 16752쪽), “비둘기 우는 뽕나무에 비가 다시 내리니, 또 다시 농부의 활짝 웃는 얼굴 만날 수 있네(鳩鳴桑樹雨還來, 且得農夫笑口開)”라고 한 劉應時(?~?)의 <過田家>(38책, 권2152, 24233쪽), “때맞춰 내리던 비가 개이니 더욱 아름답고, 강마을 농부들은 이야기꽃 피우느라 시골벽적하네(一雨及時晴又佳, 江村農父話諠譁)”라고 읊은 역시 같은 시인의 <雨後訪田家>(38책, 권2152, 24235쪽) 등 그 예를 모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물론 봄비가 때에 맞춰 내리면 모두들 즐거워하는 喜雨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비가 오래도록 내리지 않거나, 너무 많이 내리거나, 때에 맞지 않게 내린다면 이는 농부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苦雨가 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田家樂을 읊고 있는 시들은 수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나 부역과 조세 같은 관청의 착취가 없어 풍년이 들었음을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趙崇嶠(1198~1255)은 <田家>(60책, 권3171, 38075쪽)에서 권농과 함께 풍

년을 즐거워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 | |
|--------|-----------------------|
| 方春事鋤犁, | 바야흐로 봄날에 농사일을 열심히 하여, |
| 晚節多黍稌. | 늦은 절기 가을에 기장과 벼가 많구나. |
| 雞豚樂豐歲, | 닭과 돼지 잡아 풍년을 즐거워하며, |
| 一飽輕萬事. | 한껏 배불리 먹으니 만사가 가볍구나. |
| 少長情熙熙, | 젊은이 늙은이 모두 너무나 즐거워서, |
| 呼喚相爾汝. | 서로들 부르기를 너나들이하는구나. |
| 雖無禮節拘, | 비록 예절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나, |
| 氣象應近古. | 그 기상은 마땅히 옛날과 가깝구나. |
| 先進不可期, | 예악 익히는 선비는 기약할 수 없어, |
| 無懷在農圃. | 무희씨의 백성이 농가 채마밭에 있구나. |

봄날부터 열심히 일하여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는 농촌의 즐겁고 여유로운 모습을 그리면서 권농과 풍년의 찬미 및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였다. 趙崇嘯은 七言絕句의 다른 <田家>(60책, 권3171, 38080쪽)에서도 위의 시에서 보여준 것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읊기도 하였으며, 18) “벼 익는 논밭마다 늙은 농부 웃음 짓는데, 둥둥둥 시골의 북소리 때가 풍년임을 즐거워하네(稻熟田間笑老農, 嚶嚶村鼓樂時豐)”라고 한 劉學箕(1200년 전후)의 <田家>(53책, 권2782, 32922쪽), “다행히 정역의 고통이 없으니, 듬뿍 취하여 풍년을 즐겨보세(幸無征役苦, 一醉樂豐年)”라고 노래한 潘璵(?~?)의 <田家>(64책, 권3341, 39924쪽) 등도 풍년을 즐거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이다.

이 밖에 張耒의 <田家三首>(20책, 권1163, 13124쪽), 郭祥正의 <田家

18) 이 시는 다음과 같다. “닭과 돼지 잡고 백주 내어 풍년을 즐거워하니, 배부르면 베게 높여 잠을 자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네. 젊은이 늙은이 너그럽게 서로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니, 순화한 기풍은 마땅히 복희시대 이전인양 하다네.(雞豚白酒樂豐年, 飽即高眠不問天. 少長有恩相爾汝, 淳風應似伏羲前.)” 시의 편폭 차이만 있을 뿐, 풍년이 든 가을의 풍성함과 전원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은 흡사하다.

四時>(13책, 권757, 8815쪽), 李綱(1083~1140)의 <田家四首>(27책, 권 1543, 17524쪽), 그리고 方一夔의 <田家四事>(67책, 권3529, 42224쪽) 등의 연작시는 내용으로 볼 때, 때로 田園苦와 田園樂 및 전원 풍광의 묘사 등이 뒤섞여 있기도 하지만, 그 중 일부분의 시들은 전반적인 내용이 전원생활의 예찬이나 권농 또는 풍년을 즐거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가로운 전원생활을 그리면서도, 흉년이 든 작년과 올해 농사를 비교하며 농촌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張耒의 <田家三首> 중 둘째 수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

| | |
|----------|---------------------------|
| 社南村酒白如餠, | 社稷터 남쪽 마을의 술은 물엿 같이 희고, |
| 鄰翁宰牛鄰媪烹. | 이웃 할아버지는 소를 잡고 할머니는 요리하네. |
| 插花野婦抱兒至, | 머리에 꽃을 꽂은 아낙은 아이를 안고 오고, |
| 曳杖老翁扶背行. |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는 등짐을 졌네. |
| 淋漓醉飽不知夜, | 만취된 사람들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
| 裸股掣肘時歡爭. | 바지 걷어붙이고 팔뚝 끌며 기쁨을 다툰다네. |
| 去年百金易斗粟, | 작년에는 백 량으로 한 말의 곡식을 바꿨으니, |
| 豐歲一飲君無輕. | 풍년에 한 잔을 그대는 하찮게 생각지 마시게. |

田家の 괴로움과 즐거움을 읊고 있는 시 외에도, 전가시에는 白描의 수법을 사용하여 한적하고 여유로운 농촌의 풍광과 경물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그려낸 시들도 많이 보인다. 다음 절에서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농촌의 풍광과 경물을 그려낸 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농촌 풍광과 경물

전가시 중에는 힘들고 고통스런 농촌의 현실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안분자족의 농촌 생활을 노래한 것도 아닌, 단순히 눈앞에 펼쳐지는 농촌의 풍광과 경물들을 묘사한 시들도 있다. 대체로 이에 속하는 시들은 아름다운 농촌의 풍광과 경물을 시인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들

이다.

먼저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의 봄날 전원의 풍광을 묘사한 歐陽脩의 <田家>(6책, 권292, 3686쪽)를 한 수 보기로 하자.

| | |
|----------|----------------------------------|
| 綠桑高下映平川, | 높고 낮은 신록의 뽕나무 들판 시냇가에 비치고, |
| 賽罷田神笑語諠. | 田神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끝난 뒤 웃음소리 요란하네. |
| 林外鳴鳩春雨歇, | 봄비 그치자 숲 저편에서 비둘기 소리 들려오고, |
| 屋頭初日杏花繁. | 지붕 위에 해가 막 떠오르니 살구꽃 변화하구나. |

높고 낮은 산언덕따라 심겨 있는 뽕나무의 푸르름은 평원의 개천에 비추고, 農神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후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다는 표현 속에는 滁州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을 해결하는 뽕나무 농사와 발농사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滁州 지방 전원생활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였는데, 자급자족적인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은 후반부의 살구꽃 변화하다는 평화롭고 한가한 표현에서 더욱 잘 살아나고 있다. 구양수는 짧은 한 수의 절구시속에서 평화롭고 목가적이면서도 생산력이 넘쳐나는 시골의 정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였다.

七言絶句로 된 劉子翬(1101~1147)의 <田家>(34책, 권1913, 21351쪽) 역시 전원의 풍광을 한 폭의 그림처럼 작은 화폭에 그리고 있다.

| | |
|----------|----------------------------|
| 長空淡淡如雲掃, | 넙적한 창공은 담담하니 구름을 쓸은 듯한데, |
| 暮過田家風物好. | 저녁 무렵 시골집을 지나가니 풍물이 좋구나. |
| 耕犁倚戶寂無人, | 쟁기만 문에 세워져 있고 사람 없어 적막한데, |
| 飢牛臥齧牆根草. | 배고픈 소는 누워서 담장 아래 풀을 뜯고 있네. |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시인의 눈에 비친 한가롭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해질 무렵의 농촌과 시골집을 담담하게 묘사하였다.

해질녘의 전원을 그림처럼 묘사한 梅堯臣의 <田家>(5책, 권241, 2790쪽) 역시 눈앞에 펼쳐지는 농촌의 풍경과 경물들을 목가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

| | |
|--------|--------------------|
| 高樹蔭柴扉, | 높은 나무 사립문에 그늘 지우고, |
| 青苔照落暉. | 푸른 이끼에 석양이 비치는데, |
| 荷鋤山月上, | 산 위에 달이 뜨자 호미를 메고, |
| 尋徑野煙微. | 좁은 안개 속에 오솔길 찾네. |
| 老叟扶童望, | 늙은이가 아이 안고 바라보니, |
| 羸牛帶犢歸. | 지친 소 송아지 데리고 돌아오네. |
| 燈前飯何有, | 등잔 앞에 놓인 밥 무엇이 있나? |
| 白薤露中肥. | 이슬 맞아 통통해진 흰 부추라오. |

달이 뜰 때까지 밭을 매고 지쳐서 돌아와 먹는 저녁밥에 반찬이라곤 이슬 맞아 통통해진 흰 부추뿐이다. 농촌의 경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과 더불어 가난한 생활을 담담히 그려내었다. 梅堯臣은 봄 여름 가을 겨울四季의 농촌 풍경을 차례로 그리고 있는 동일 시제의 다른 <田家(四時)> 중 <秋>(5책, 권232, 2713쪽)에서도 “황량한 시골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즐겨, 자못 만족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네(荒村人自樂, 頗足平生心)”라고 읊어, 고달프고 곤고한 농촌 생활 속에서도 안분자족하는 농민과 농촌 경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사계절의 田家를 그리고 있는 이 시에서, 겨울을 그린 시와는 달리, 봄과 여름을 읊은 부분은 비교적 희망에 찬 농촌의 정경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였다.¹⁹⁾

19) 목가적인 전원 풍광을 읊고 있는 시로 <田家(四時)> <春> 시는 앞 3.2절에서 이미 인용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연작시 중 <夏>를 한 수 더 인용하기로 한다. “풀과 나무 울타리 가에 무성하고, 논과 밭 비스듬히 성곽 향해 있는데, 남산 콩밭 김매러 갔다가, 동쪽 오이밭에 물 주러 오네. 깨끗한 물에 초가집 비치고, 맑은 바람 부니 벼꽃 피어나는데, 앞 비탈에 저녁 해 저물어, 개굴개굴 개구리 다투어 우네.(草木遶籬盛, 田園向郭斜. 去鋤南山豆, 歸灌東園瓜. 白水照茅屋, 清風生稻花. 前陂日已晚, 聒聒競鳴蛙)”

아울러 매요신의 <川上田家>(5책, 권249, 2967쪽) 역시 전원시풍의 牧歌의인 情趣와 自適의 意趣를 지닌 농촌의 경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시로 들 수 있다.

| | |
|--------|----------------------|
| 斜光隔河明, | 강 건너 환히 비추는 석양빛이, |
| 入照桑柘下, | 뽕나무 아래에까지 비치는데, |
| 阜壟生麥苗, | 언덕 위 밭고랑에 밀싹이 자라, |
| 青青尙堪把 | 파릇파릇 손아귀에 잡힐 듯하네. |
| 遠見牛羊歸, | 멀리 소와 양들 돌아오는 것 보이고, |
| 相親童稚野. | 아이들은 들에서 친하게 장난치네. |
| 醉歌秋草間, | 가을 풀밭에 앉아 술노래 부르니, |
| 頗與世家寡. | 자못 세상과는 떨어진 듯하여라. |

농촌의 경물과 물상들을 소재로 단순히 눈앞에 펼쳐지는 농촌의 풍광이나 경물들을 담담히 묘사한 시들은 내용상 대략 65수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 포함되는 시들은 대부분 郭祥正의 <田家四時>(13책, 권757, 8815쪽), 趙蕃의 <田家即事八首>(49책, 권2633, 30760쪽), 華岳의 <田家十絕>(55책, 권2885, 34421쪽), 毛翊(?~?)의 <吳門田家十詠>(59책, 권3135, 37487쪽), 趙希逢(1240년 전후)의 <和田家八首>(62책, 권3266, 38941쪽), 方一夔(?~?)의 <田家四事>(67책, 권3529, 42224쪽)와 <田家雜興三首>(67책, 권3536, 42287쪽) 등 연작시가 많은 양을 차지하여, 시제만으로 보았을 때 30여제 정도 된다고 하겠다.

이 절에서 다루고 있는 시들은 풍격상 陶淵明과 王維 풍의 田園詩를 계승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韓維(1017~1098)의 <次韻和三兄田家>(8책, 권417, 5112쪽)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

| | |
|--------|----------------------|
| 東臯雨新足, | 동쪽 언덕에 새로 비가 흠족히 내려, |
| 綠野對柴扉. | 푸른 들판이 사립문 앞에 펼쳐졌네. |
| 晴日風景曠, | 개인 후의 햇살에 풍경이 광활하고, |

| | |
|--------|-----------------------|
| 暮春草木肥 | 늦은 봄이라 초목은 살이 쪼구나. |
| 好鳥依林響, | 좋은 새는 숲에 의지해 노래하고, |
| 疲牛望舍歸. | 피곤한 소는 집을 바라보며 돌아오네. |
| 餉婦散田陌, | 새참 내는 부인네는 밭둑에서 흩어지고, |
| 桑間人語稀. | 뽕나무 사이에 사람 소리 드물어라. |

동쪽 언덕에 봄비가 흠뻑히 내려 농사짓기에 알맞고, 비를 맞은 수목은 윤기가 흐르는 늦봄의 풍요로우면서도 한적한 시골을 묘사하였다. 내용으로 보았을 때, 반가운 비가 제 때에 내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농민과 단비가 내린 후의 농촌 정경을 읊은 시이므로 앞 절에서 다루었던 안분자족하는 농촌 생활을 읊은 시와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본고에서는 소재주의에 입각해 연구대상인 시를 선별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비록 시제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였지만, 앞 절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모호한 내용의 시들도 있었다. 때로는 시의 주된 내용이 다른 소재에 편향된 듯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또한 전가와 무관한 내용을 담은 시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宋自遜(?~?)의 <田家謠>(62책, 권3255, 38832쪽), 釋文珣(1210~?)의 <田家謠>(63책, 권3327, 39690쪽) 등은 권농과 풍년의 찬미를 주내용으로 하면서도 聖王의 찬미나 국운 왕성의 내용까지 담거나 때로는 인생무상과 명리의 부질없음을 덧붙이기도 하였고, 范成大(1126~1193)의 <田家留客行>(41책, 권2244, 25767쪽), 陳允平(?~?)의 <過田家>(67책, 권3516, 41988쪽) 등은 遊記詩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전체 시의 초점은 농가와 농촌에 맞추어져 있으며,²⁰⁾ 梅堯臣의

20) 시제에 '宿-' '留-' '過-'라는 용어와 '田家'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유기시적인 성격을 지닌 시는 모두 18수나 되어 비교적 많이 보인다. 이들 시는 대체로 유기시적인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또 전가시로서의 성격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范成大는 <田家留客行>에서 "길손은 시

<田家屋上壺>(5책, 권249, 2961쪽)와 裘萬頃(?~1219)의 <宿田家竹亭>(52책, 권2741, 32277쪽) 등은 詠物詩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녔지만 결국은 농촌에 존재하는 사물을 읊고 있는 시들이다.

陳允平的 <過田家> 한 수를 예시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 |
|--------|----------------------|
| 村南啼布穀, | 마을 남쪽에서 뻐꾸기 울고, |
| 村北響纜車. | 마을 북쪽에는 물레 소리 들리네. |
| 隔浦賣魚市, | 강 건너 포구에는 어시가 서있고, |
| 傍橋沽酒家. | 다리 옆에 술과는 주막이 보이네. |
| 野花朝日暖, | 들꽃들은 아침 햇살에 따스하고, |
| 溪柳背風斜. | 시내 버들은 바람에 비스듬히 날리네. |
| 又過東鄰去, | 다시 동쪽의 이웃마을을 지나가는데, |
| 東鄰採菊芽. | 동쪽 마을에서는 국화싹을 따고 있네. |

유기시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시골 길 옆의 농가를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농촌의 원경과 근경을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 그려내고 있어, 이 시는 농촌의 풍광이나 경물들을 담담히 묘사한 시로서, 본 절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골집이 작다고 웃지 마오, 집안은 보잘것없지만 쇠소옹대는 할 만하다오. 큰 아이는 손님 나귀 뽕나무 가에 매어놓고, 작은 아이 자리 털어 까니 담요보다 부드럽네. 나무절구에 눈송이 같은 하얀 쌀 갓 짊어서, 구수한 밥 얼른 지어놓고 와 손님을 대접하네. 좋은 사람 집에 들면 모든 일 잘 된다니, 올헨 눈에 보리 늦될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하네.(行人莫笑田家小, 門戶雖低堪灑掃. 大兒繫驢桑樹邊, 小兒拂席軟勝氈. 木臼新春雪花白, 急炊香飯來看客. 好人入門百事宜, 今年不憂蠶麥遲.)”라고 읊고 있는데,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지만 후덕하고 여유로운 농촌의 인정을 여러 가지 심상을 열거하며 이야기하였다. 좋은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올해 농사일이 순조로워질 것임을 염원하면서 시를 마무리하였는데, 시제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볼 때, 농촌의 따뜻한 인정을 이야기하면서 초점은 농촌과 농가와 농사에 귀결되고 있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농촌의 일면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田家'를 소재로 한 시들을 일차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필자는 농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면 농촌의 가장 중요한 무대 중 하나인 '田家'를 소재로 한 시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송시 중 전가를 소재로 한 시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연구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우선 《全宋詩》에 수록된 송시 중에서 詩題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한 80詩人の 120題 184首를 '田家詩'라 칭하고, 이들 시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들 시를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크게 고통과 간난의 농촌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田家嘆 내지 田家苦를 읊은 시, 안분자족하는 농촌 생활을 예찬하거나 풍년을 즐거워하고 있는 田園詩風의 시 또는 田家樂을 읊고 있는 시, 시인의 눈에 보이는 농촌의 풍광과 경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시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唐代와 宋代의 전가는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 당대 전가는 안분자족의 농촌 생활을 예찬하는 田園詩風 또는 田家樂을 읊고 있는 시가 전체 시 59수중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지만, 송대 전가는 오히려 간난과 고통의 농촌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田家嘆風 내지 田家苦를 읊은 시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는 차이를 보여주었다.²¹⁾

아울러 농촌에 고통과 간난을 제공하는 원인에 대한 묘사도, 당시에서는 과중한 세금과 전쟁으로 인한 부역만이 주로 제시되었으나, 송시에서는 가혹한 세금과 지나친 부역을 비롯하여 홍수 가뭄 총해 등의 자연재해까지 더욱 다양하게 열거되었다. 시의 서술에 있어서도 고통과 간난의 농

21) 당대 전가의 전모에 대해서는 禹在鎬·崔繼良, <唐代'田家詩'考>(《中國學報》 제52집, 韓國中國學會, 2005.12)를 참고하였다.

촌 현실이 송시에서는 더욱 직설적이고 뾰족하게 묘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송대 전가시에서는 주제가 한 가지 방향으로 일관되게 묘사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또한 당대 전가시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宋詩에서는 田家뿐만아니라 詩題에 農家·田舍·田居·村家·村舍·村居·農舍·農戶·農居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가 당시에 비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시에 대한 田家詩의 비율은 唐代보다 宋代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宋代 시인들이 唐代 시인들보다 농촌과 농가와 농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제에 '田家'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송대 농촌사회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그려낸 다른 많은 시들에 대한 분석과 당대 전가시와 송대 전가시의 보다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 뒤따른다면, 송대 농촌시에 대한 전모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작업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중국은 농업국가이면서도 농민이 문학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문학작품에서 농민은 커녕 농민의 삶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가시 중의 상당수는 농민과 농민의 삶을 주제로 하였음이 분명하며, 특히 간난과 고통의 농촌 현실을 그리고 있는 시들은 작품의 중심이 분명히 농가와 농민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이점만을 고려하더라도 전가시는 농촌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宋詩 중에서도 중요한 한 부분으로써 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全宋詩》(全72卷), 北京大學出版社, 1998.

- 繆鉞 等, 《名家鑑賞宋詩大觀》, 上海辭書出版社, 1988.
- 전종서 選著, 이흥진 역, 《宋詩選註》, 형설출판사, 1989.
- 李炳漢 選譯, 《宋詩》, 탐구당, 1988.
- 김원중, 《宋詩鑑賞大觀》, 까치, 1995.
- 김원중, 《宋詩》, 을유문화사, 2004.
- 류종목, 《宋詩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김학주, 《新譯宋詩選》, 명문당, 2003.
- 송용준 외, 《宋詩史》, 亦樂, 2004.
- 이종진 외, 《중국시와 시인》(宋代篇), 亦樂, 2004.
- 侯健, 《古代田家詩·田園詩鑒賞》(首都師範中文系), 農村讀物出版社, 1986.
- 歐陽脩, 《歐陽脩全集(上,下)》, 臺北: 世界書局, 中華民國72年.
- 李章佑 등 옮김, 《古文眞寶》, 乙酉文化社, 2002.
- 池榮在, 《中國詩歌選》, 3판: 乙酉文化社, 1989.
-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初版: 上海辭書出版社, 1986.
- 文明淑, <梅堯臣詩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6.
- 윤재환, <茶山の 田家詩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 윤재환, <田家詩의 形象技法考-茶山の '夏日田園雜興' 24首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세어문학》 30·31집, 1999.
- 손찬식, <田家詩의 性格>, 熊津語文學會 《웅진어문학》 제4호, 1996.
- 김승심, <中國山水田園詩之流變>, 《中國學研究》 제5집, 숙명여대 중국 연구소, 1987.
- 禹在鎬·崔繼良, <唐代 '田家詩' 考>, 《中國學報》 제52집, 韓國中國學會, 2005.12.
- 崔繼良, <唐代 農村詩 研究>,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12.

< 中文提要 >

中國是歷代以農業爲主的國家，中國古代史亦稱農村社會史，這一點在宋代也不例外。因此，筆者認爲宋詩當中歸入農村詩的詩篇一定很多。所以，筆者想對宋代的農村詩進行研究，本篇論文就是研究農村詩的最先寫作的。本稿首先把重點放在題材上，先對宋詩題目中使用‘田家’用語的詩進行挑選，然后把這類詩稱作‘田家詩’，其次對這些詩按其內容進一步進行分類和分析。筆者已經對唐代的‘田家詩’進行了研究，本稿是其第二步的。

‘田家’的意思與‘農家’或‘農夫[農父]’相當，‘田家詩’這種術語雖然有點陌生，但在中國和韓國既有的研究成果當中已經使用過這種術語，因此本稿中也照用‘田家詩’這一詞。收錄於《全宋詩》的宋詩中，在詩的題目中‘田家’這一詞的就有梅堯臣，張耒，趙蕃等一共80名詩人寫的120個題目中184首。本稿首先對‘田家詩’的範疇進行了解，其次按照內容把‘田家詩’分成以下三種題材的詩，即表現現實生活矛盾與不滿情緒的詩，反映安分自足的農村生活的詩，描寫農村風光和景色的詩。

中國雖然是農業國，但是以農民爲主人翁的題材極少，有些人甚至主張在文學作品當中不用說農民，連農民生活都沒有反映。而在田家詩中大多數分明是以農民和農民的生活作題材，尤其是在表現現實矛盾和不滿情緒的詩篇中，中心思想主要反映農家和農民，這一點是無可否認的。有鑒于此，可以得出這樣的一個結論，即田家詩是構成宋詩中的最重要的部分，并各具其意。

주제어 : 田家詩, 農村詩, 宋詩, 全宋詩, 唐詩, 田家, 農家